

닿소리를 ‘그न्द드~흐’로 발음하는 오류 입증자료

기본 모음 (•)하늘과 (一)땅, (1)사람 주축으로 발음해야

닿소리를 ‘그न्द드~흐’로 발음하는 오류 입증 요약

- 1) 닿소리 발음 오류는 어렵고 명확하지 못한 소릿값, 닿소리, 홀소리 개념 정의가 원인입니다.
- 2) 음가(소릿값), 닿소리, 홀소리의 쉽고 명확한 개념 정의에 따라 닿소리와 홀소리를 결합해야 알아 들을 수 있는 소리 한글이 됨을 알고, **닿소리와 홀소리를 결합하면 소릿값이 잘 드러납니다.**
- 3) 그러므로 닿소리 소릿값이 단독으로 확 드러나지 않는다고 해서 가장 약한 모음 ‘一’를 붙여 **굳이 닿소리를 '그, 느, 드, ~흐'로 발음할 필요는 없습니다.** 오히려 혼란이 되어 받침까지 '그, 느, 드, ~흐'로 발음하여 **한글, 한국어 교육에 방해만 될 뿐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합니다.**
- 4) 혼란으로 한글, 한국어 교육에 방해가 되고, 발음이 정확하지 못한 예입니다.

① 혼란으로 받침에 적용한 발음은 엉망 →

발음 (모오므)(정확×)
몸) □+ㄴ+□ → 몸

발음(정확×)
간) 가ㄷ(드) → 간

② 발음이 정확하지 못함 →

발음 (정확○)
게) ㄱ+ㄱ → 그에 → 게

발음 (정확×)
게) ㄱ+ㄱ → 그에 → 게

1. 닿소리 발음 오류 사례

1) 국립한글박물관 - 누리 한글 배움터 - 손전화로 볼 수 있음

<http://learning.hangeul.go.kr/letters/consonant/basic>

닿소리를 ‘그न्द드~흐’로 발음하고 있습니다.

2) 세종학당 재단 - 한글 발음 학습 프로그램 ‘팝파핑 코리안’ - 컴퓨터로만 볼 수 있음

<https://www.sejonghacdang.org/opencourse/etc/list.do> 에서

https://www.sejonghacdang.org/storage/image/upload/data/SJL027/main_loader.html

닿소리를 ‘그न्द드~흐’로 발음하고 있습니다.

3) 시중 일반인들, 시중 한글 책 - 닿소리 초성과 중성 받침을 '그, 느, 드 ~흐' 로 발음하고 있어요

① 한글공부 - 기본받침 읽기 / Learn Korean - Final Consonants → <https://youtu.be/D2R8JxiX9ek> (처음부터)

문제점) **중성 받침**을 '그, 느, 드 ~흐' 로 발음하고 있어요. 예) 가+ㄱ(가그) → **각**

발음(정확×)
각) 가+ㄱ(가그) → 각

② 기본자음 모음 함께 읽기 / Learn Korean - Consonants with Vowels → <https://youtu.be/VQcx-zOgWhs> (처음부터)

문제점) **초성**을 '그, 느, 드 ~흐' 로 발음하고 있어요. 예) ㄱ(그) + ㅏ = **가**

발음(정확×)
가) ㄱ(그) + ㅏ → 가

③ 아시아발전재단**ADF**- <https://www.youtube.com/watch?v=vJvTOsesbP8> (8분 38초 글자 만들기 '몸')

문제점) **8분 38초** 글자 만들기 '몸'에서 **초성과 중성 받침**

예) ㅁ + 오 + ㅁ = **몸**, '그, 느, 드 ~흐' 로 발음하고 있어요

발음 (묘오묘)(정확×)
몸) ㅁ+ㅓ+ㅁ → 몸

④ 이지교육 3개월 한글 떼기 <https://youtu.be/EUJWe3SB0Rc> (처음부터)

문제점) **받침**을 '그, 느, 드 ~흐' 로 발음하고 있어요. 예) 가+ㄷ(드) → **간**

발음(정확×)
간) 가+ㄷ(드) → 간

⑤ 한국교육과정평가원 **찬찬한글교사용pdf** (10, 26, 38, 96, 131쪽 참고)

문제점) **초성**을 '그, 느, 드 ~흐' 로 발음하고 있어요. 초성 'ㅇ'은 소리가 없다(131쪽 오류)

오류(10쪽)
ㅇ) 하늘(ㅇ)→태양(ㅇ)

발음(38쪽)(정확×)
가) 그 + ㅏ → 가

오류(26, 96쪽)
ㅟ) ㅣ + ㅓ → ㅟ

2. 닿소리 발음 오류 사례로 나타난 결과

문체부 정부 부속기관 국립한글박물관, 세종학당,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서 닿소리를 '그느드~흐'로 발음하고 있으므로 의심하지 않고 **믿으며 받침까지 '그느드~흐'**로 발음하는 사례가 많습니다. 이런 혼란 때문에 방해가 되어 규칙과 체계를 갖춘 과학으로 지도-학습을 못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**한글, 한국어가 더욱 어려워지고** 있습니다. 나아가 **세계 기록 유산 훈민정음 최고 가치가 훼손**되고 있습니다.

3. 혹자의 견해

- 1) 닿소리는 소릿값이 단독으로 확 드러나지 않아 가장 약한 모음 'ㅡ'를 붙여 닿소리 음가를 잘 드러나게 하기 위한 전략으로 닿소리를 '그, 느, 드, ~흐'로 발음한다며 설명하고 있으나, 아무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, 무조건 **그대로 따라 초성은 물론 중성 받침에도 닿소리**를 '그, 느, 드, ~흐'로

발음하는 혼란을 초래하고 있습니다.

- 2) 이것을 한글교육 잘못으로 봐야 될까 아니면 닿소리 발음 오류로 규정하고 폐기해야 할까요? **최소한 적어도 오류는 아니라 하더라도 한글, 한국어교육에 방해가 되고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.**

4. '세종규칙 한글' 개발자 장덕진의 견해

- 1) 모든 글자는 닿소리와 홀소리가 결합하여 알아들을 수 있는 소리 한글이 된다는 것은 누구나 잘 알고 있지만, 왜 닿소리와 홀소리가 결합해야 알아들을 수 있는 소리 한글이 되는지 그 이유를 알고 결합하며 지도하고 배우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.
- 2) 닿소리와 홀소리를 결합해야 하는 이유, 그 이유를 아주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음가(소릿값), 닿소리, 홀소리 개념 정의를 아주 쉽고 명확하게 제시해 놓아야 합니다.

3) 음가(소릿값), 닿소리, 홀소리 명확한 개념 정의

유치원생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개념 정의를 명확하게 풀이하여 밝힘(장덕진 주)

① **음가(소릿값)** → 성음(成音-훈민정음에서) → **알아들을 수 있는 소리**

* **음** → 소리 * **가(값)** → 알아들을 수 있는

② **닿소리** → **홀소리에 닿아 도움을 받아야 알아들을 수 있게 나는 소리**

* 발음기관에 닿아 나는 소리로 홀로는 알아들을 수 없으며 홀소리 도움을 받아야 알아들을 수 있는 소리가 됩니다.

* **간단히 말하면 소리는 있지만 값은 없습니다.** → 알아들을 수 없는 소리

* 특징 → 이름과 음가가 다릅니다. 예) ㄱ(이름) ≠ 음가(값이 없음)

③ **홀소리** → **도움 없이 홀로도 알아들을 수 있게 나는 소리**

* 발음기관에 거슬리지 않고 홀로 나는 소리로 알아들을 수도 있습니다.

* **간단히 말하면 소리도 값도 있습니다.** → 알아들을 수 있는 소리

* 특징 → 이름과 음가가 같습니다. 예) ㅏ(이름) = 아(음가)

4) 닿소리와 홀소리가 결합해야 하는 이유 (ㄷ+ㅏ=다)

닿소리는 홀소리 도움을 받아야 알아들을 수 있게 나는 소리가 되므로 닿소리는 홀소리와 **결(결혼)**해야 알아들을 수 있는 소리 한글이 됩니다.

5. 초성 닿소리 소릿값을 확 드러나게 하면서 정확하게 발음하며 읽는 방법 (세종규칙 한글)

- 1) 모든 글자 **발음 기준은 중성 홀소리**임을 알고, 발음 기준 중성 홀소리가 하늘(•) 하나일 때 'ㄱ ㄴ ㄷ'는 발음 시작 바탕을 'ㅡ'(땅), 하늘(•) 둘일 때 'ㄱ ㅋ ㄴ ㄹ'는 발음 시작 바탕을 'ㅣ'(사람)로, 이런 기준을 모든 글자에 적용하면 닿소리 **소릿값도 확 드러나고, 발음 시작(초성) 기준도 명확하여 혼란도 없고 발음이 아주 정확하다.**
- 2) 혼란 없고 발음이 정확함

① 발음 시작(초성) 바탕이라는 **명확한 기준 때문에 받침까지 적용하는 혼란은 없습니다.**

발음 (정확○)
계) ㄱ+ㄱ → 그에 → **계**

② 모든 글자에 적용되며 **발음도 아주 정확함**

발음 (정확○)
계) ㄱ+ㄱ → **기에** → **계**

◆ **훈민정음 (·)하늘과 (一)땅, (ㅣ)사람 주축으로 발음하는 이론적 배경**

1) 모든 글자 발음 기준은 중성 홀소리

훈민정음 해례본 내용 중에서

[제106] 中聲承初之生, 接終之成, 人之事也. [정음해례8ㄴ:2-3 제지해]
 [제현106] **중성**은 초성이 생성된 것을 받아서 중성이 완성되도록 이어주니 **사람**의 일이다.
 훈민정음 해례본 입체강독본 178쪽 220쪽
 성음 = 발음

[제107] 蓋字韻之要, 在於中聲, 初終合而成音. [정음해례8ㄴ:3-6 제지해]
 [제현107] 대개 글자 소리의 핵심은 **중성**에 있으니, **초성과 중성과 합하여 음절**을 이룬다.

2) 발음 기준 중성 홀소리가 하늘 하나(·)일 때 ‘ㄱ+ㄱ’는 발음 시작 바탕을 ‘一’(땅)로, 하늘 둘(··)일 때 ‘ㄱ+ㄱ+ㄱ’는 발음 시작 바탕을 ‘ㅣ’(사람)로

훈민정음 해례본 내용 중에서

[제현78] 그러므로 천지인 삼재가 만물의 우선이 되고 하늘이 천지인 삼재의 **시작**이 되는 것과 같이 훈민정음 해례본 입체강독본 217쪽

● **一** | 석 자가 여덟 소리의 우두머리가 되고 또한 ● 자가 석 자의 **으뜸**이 됨과 같다.

「제자해」에서(김슬옹, 훈민정음 해례본 입체강독본 215~226쪽) “‘ㄱ+ㄱ’는 ‘가 一’와, ‘一가’와 합해서 이루진 것은 **하늘과 땅이 처음으로 사귀는 뜻이다.**” 또 “‘ㄱ+ㄱ’는 ‘ㅣ와 ·가, ‘·와 ㅣ’가 서로 합해서 이루진 것이며, 역시 하늘과 땅의 쓰임이 일과 사물에서 나타나되 사람을 기다려서 이루어진 뜻을 취한 것이다.”라고 하였다. 그리고 “‘ㄱ+ㄱ+ㄱ’는 ‘ㄱ+ㄱ+ㄱ’와 같지만 ‘ㅣ’에서 시작된다.”라고 하였다.

위 1), 2)와 제자해(215~226쪽), 중성해(228~230) 내용 전체 맥락으로 분석하고 해석하면 ①하늘이 천지인 삼재의 시작이고 ‘ㄱ+ㄱ+ㄱ+ㄱ+ㄱ+ㄱ’의 으뜸이며 ②지구에서는 사람이 으뜸이고, 하늘과 땅이 처음으로 사귀게 된다. ③‘ㄱ+ㄱ+ㄱ+ㄱ+ㄱ+ㄱ’는 ‘ㅣ사람’에서 시작하여 ‘一땅’으로, 다시 ‘一땅’에서 시작하여 ‘ㅣ사람’으로 윤회 원리에 따라 처음 낮은 하늘(·)은 땅(ㄱ+ㄱ+ㄱ+ㄱ)과 사귀고, 또 사람을 기다려 사람 위 높은 하늘(··)이 사람(ㄱ+ㄱ+ㄱ)과 사귀게 된다고 추정됩니다.

④또한 모음(홀소리)은 음양 원리를 기본으로 만들어졌습니다. 기본 모음 ‘·, 一, ㅣ’을 보면 ‘·’

은 양인 하늘을 본떠 만들었고, ‘一’은 음인 땅을 본떠 만들었으며 ‘1’는 음과 양 중간자인 사람을 본떠 만들었습니다.

3) 따라서 한글 발음은 기본 모음 (●)하늘과 (一)땅, (1)사람 주축으로 발음해야 합니다. 천지인 삼재의 으뜸인 하늘을 중심으로 만들어진 발음 기준 중성 홀소리가 하늘 하나(●)일 때 ‘ㄱ+ㅣ+ㅏ’는 발음 시작 바탕을 ‘一’(땅)로, 하늘 둘(●●)일 때 ‘ㄱ+ㅣ+ㅏ+ㅏ’는 발음 시작 바탕을 ‘1(사람)’로, 발음 시작 바탕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. 모든 글자에 적용해본 실천 연구 결과에서도 아주 잘 맞고 발음도 정확합니다.

(발음 시작 바탕 ‘一땅’과 ‘1(사람)’은 → 약하게 빨리 연이어 발음한다.)

발음 (정확○) 계) ㄱ+ㅣ → 그에 → 계	발음 (정확○) 계) ㄱ+ㅣ → 기에 → 계
발음 (정확○) 달) ㄷ+ㅣ+ㄹ → 드 알 → 달	발음 (정확○) 갈) ㄱ+ㅣ+ㄹ → 기알 → 갈
겹받침 발음 (정확○) 막) ㅁ+ㅣ+ㄹ → 므악 → 막 닿소리 순서규칙 순발음 ㄹ→ㄱ (이야기)형님 먼저 ㅎ	겹받침 발음 (정확○) 뺨) ㅂ+ㅣ+ㅂ → 삐얍 → 뺨 닿소리 순서규칙 순발음 ㅂ→ㅂ (이야기)형님 먼저 ㅎ
겹받침 발음 (정확○) 압) ㅇ+ㅣ+ㄹ → 으암 → 압 닿소리 순서규칙 역발음 ㄹ→ㅁ (이야기)동생 먼저 ㅎ	겹받침 발음 (정확○) 할) ㅎ+ㅣ+ㄹ → 흐알 → 할 거센소리 발음 안함 ㄹ→ㄹ (이야기)거센 놈하고 안 놀아요

6. 맺는 말

- 1) **닿소리 발음 오류**는 어렵고 명확하지 못한 소릿값, 닿소리, 홀소리 개념 정의가 **원인**입니다. 이런 오류로 인한 혼란 때문에 규칙과 체계를 갖춘 과학으로 배우지 못하고 무조건 외워서 낱말식 통글자로 배울 수밖에 없습니다.
- 2) 훈민정음 최고 가치를 살려 규칙과 체계를 갖춘 과학으로 한글과 한국어를 쉽고 간단명료하게 배울 수 있도록 지원하고 노력하여 세계 기록 유산에 걸맞는 한글, 한국어 교육교재를 만들어 놓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.

2020.09.13

규칙과 체계를 갖춘 과학 ‘세종규칙 한글’ 개발자 장덕진

세종규칙 한글 = <http://www.hangeulstudy.com>